

시대의 고통에 맞서 싸운, 치열했던 청춘의 기록

세상 바꾸는 문학의 힘 믿었던 동주 학업까지 중단하고 폭력 맞선 몽규 항일 방법은 달랐지만 신념은 같아

“인제는 굶을 도리 밖에 없었다.”
부부는 밥 한 끼 온전히 지어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눈물로 궁리를 요구한다. 남편이라고 무슨 요량이 있을까. “결혼할 때 저 먼 외국 가 있는 안해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온 은술가락”을 떠올린 건 그때였다. 장인은 해외로 망명을 떠난 뒤 “너희가 가정을 이룬 뒤에 이 술로 쌀죽이라도 떠먹으며 굶지 말라”며 은수저를 보내며 “세상 없어도 이것을 없애서 안되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어찌됐는가.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남편은 이라도 “잡혀 쌀, 나무, 고기, 반찬거리”로 연명하고자 한다. 설움에 눈물 흘린 아내는 결국 남편이 은수저와 맞바꾼 쌀로 밥을 짓는다.

“밥은 가마에서 소리를 내며 끓고 있다. 구수한 밥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위가 꿈틀거림을 느끼며 춤을 삼켰다.”

이 찼없는 남편. 먹자며 밥상머리에 대드는데, “앗! 하고 외면하였다.”

“밥 먹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안해의 술가락이 없음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까닭이다.”

● “내면적인 동주, 격정적인 몽규”

1935년 1월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신인 송한범의 ‘술가락’이란 풍토다. 그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야기는 가난한 인력거꾼 김점치의 하루를 그린 현실건의 단편 ‘은수 좋은 날’을 얼핏 떠올리게 한다. 은수 좋은 돈을 벌었지만 하필 그날 굶주린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김점치의 비극으로 현실의 고통을 드러냈다. 송한범도 식민의 고통에 신음하며 가난에 헐벗은 이들의 아픔을 반점으로 그려냈다.

송한범, 송몽규의 필명이다. 시인 윤동주와 함께 자라난 동갑내기 죽마고우이자 고종사촌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이다. 시인의 꿈을 지녔던 윤동주는 18세의 나이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송몽규를 바라보며 부러웠을 터이다. 시를 향한 열망도 더욱 커져갈 것이다.

두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매우 다르기도 했다.



윤동주(강하늘·왼쪽)와 송몽규(박정민)는 21세 때인 1938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에 나란히 입학해 경성으로 향했다. 문예지 ‘문우’를 펴내며 문학과 글로써 압축한 식민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주)플러스엠

이들과 중국 북간도 명동에서 함께 자란 고 문익환 목사는 윤동주에 대해 “그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낮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아주 고요하게 내면적인 사람이었다”고 돌아섰다. 두 사람과 함께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한 뒤 신문기자로 일한 강처중도 “동주는 사교적이지 못 함에도 친구들이 많았”고 “산책을 할 때는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다. (‘동주야 몽규야’) 반면 송몽규는 “다감하고 격정적이었다”고 수필가인 고 안병욱 송실대 명예교수는 회고했다. (1985년 11월4일자 매일경제)

그랬기 때문일까. 두 사람은 시대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보폭 역시 달랐다.

● “쉽게 씌어지는 시의 부끄러움”

송몽규는 주권 잃은 백성으로서 이를 되찾는 길에 적극 나섰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해 4월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난징으로 향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한 차례 투옥된 뒤 일제의 ‘요시찰인물’로 일상을 감시당했다.

그때 윤동주는 1917년 중국 북간도 명동촌 자신의 집에서 불과 3개월 먼저 태어난 송몽규를 “형”이라고 불렀다. 다니던 송실중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퇴하자 복잡한 심정”으로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시 ‘이런 날’, ‘동주야 몽규야’ 중에서)고 썼다. 그는 시로써 식민의 절망을 들여다보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어로 시를 쓸 수 없었던, 써서는 안 되었던 시대. 그래서 일본 여성 후카다 쿠미는 그에게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옮겨 영국 출판사를 통해 시집을 내라고 했다. 윤동주는 시집의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지었다.

시인 신경림은 “그의 시에는 유난히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 청순하고 개결한 젊음과 함께, 하늘과 바람과 별을 지향하는 밝음과 맑음, 빛의 이미지”를 윤동주 시의 가장 큰 미덕이라 했다. 그럼에도 윤동주는 ‘쉽게 씌워진 시’를 늘 부끄러워했다.

“窓(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 / 六疊房(육첩방)은 남의 나라. / 詩人(시인)이란 슬픈天命(천명)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詩(시)를 적어 볼까. / ... /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沈沈(침침)하는 것일까? / 人生(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詩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 ... / (시 ‘쉽게 씌워진 시’,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 식민의 고통... 시인과 투사의 운명

그래도 시인은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까닭에 결국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時代(시대)처럼 울 아픔을 기다리는 最後(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慰安(위안)으로 잡는 最初(최초)의 握手(악수). (위시)라고 노래했다.

신경림은 “이로써 일제의 강점 하에서는 항일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직된 투사시기에 앞서 시를 쓰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타고난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인으로 살려나가 항일사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시인은 그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사랑했다. 사촌이자 친구는 또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시대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었다. 시인은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것”이며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다. 친구는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가.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 문학 속으로 숨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영화 ‘동주’)

이들의 운명은 한 가지였다. 죽을 앞에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괴로움을 함께 나눴다. ‘일본 교토 조선인 유학생 사건’으로 1943년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나란히 선고받은 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의 캄캄한 감방에서 숨을 거뒀다. 시인은 그 순간에도 “이런 세상에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자책했다. 친구는 식민의 폭력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안타깝고 한스럽다”고 통탄하며 일제를 비웃었다. 식민의 고통은 이들이 생을 마감한 5~6개월 뒤 비로소 끝났다. 이들의 나이가 28세였다.

영화 ‘동주’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 그려

시인 윤동주와 그의 친구이자 고종사촌형인 송몽규의 이야기, 식민의 고통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맞서고자 했지만 끝내 스러져야 했던 두 사람의 짧지만 치열했던 청춘의 기록이다. 이준의 감독은 강하늘과 박정민을 앞세워 윤동주와 송몽규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흑백화면에 담아냈다. 3·1운동 100주년, 이들을 다시 만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환바이칼 열차와
알혼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



명품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천리를 걸어도 발이 편안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신발!
가볍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 가죽에 탁월한 내구성
- 뒤돌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미끄럼방지
- 3중 특수 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원터치 락(LOCK) 버튼으로 신고 벗기 편함
- 향균, 방취, 통풍의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발의 형태에 맞는 깔창 특허 / 악취 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NAVER **건강생활** 진수테크쇼핑 **은혜선**

제품 하차시 6개월 무상 A/S 보장

- 올인원 신사화의 강력한 6중 구조도
- 100% 천연소 가죽 외피
 - 자세교정용 알콘(특허)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
 - 무시이 용수철이 충격완화층을 흡수하는 미끄럼방지
 -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

모델명

- 올인원 PA1 (블랙)
- 올인원 PA3 (브라운)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3D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오솔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활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세계적인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고 사계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올인원 전연가죽 남성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 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힘든 작업, 운동 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생산되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제작되고 액션가죽이 아닌 100% 천연소 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튼튼하여 직장인사회의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기를 발휘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파이런 중창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 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솔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였고 인체에 중요한 용혈력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성 건강 신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철같은 와이어를 꼬아 만든 원터치 버튼은 최적의 장력으로 발을 감싸주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발끈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신발의 개념을 바꾸는 올인원 남성화는 발의 형태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최적의 보행 조건을 갖춰주고 고급 등산화, 트래킹화가 가지고 있는 방한, 방풍, 방습, 방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최고급 소재로 엄선 제작하였다. 실내에 활동이 많은 분이나 실외에서 운동 및 활동이 많은 분들에 매우 유용하며 디자인은 세계적인 브랜드답게 우아하고 세련된 글로벌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1결례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구입 문의전화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